

에너지절약태도 및 관련 행동과 전기에너지소비의 영향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for Energy-saving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and Electric Energy Consumption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 수 허 경 옥**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yungok Huh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develop the theoretical backgrounds, explaining consumers energy consumption behavior and analyzed its effects. In other wor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mount of electronic energy consumption. In this study, we used 678 questionnaires which were selected a quota sampling by living area who were above 20 years old and married. Summary of results of this study follows.

First, attitude for energy saving was positively related with female, high school graduated large size of family members, elderly, and middle-class consumers. In addition, consumers' search for energy saving were appeared passively in young consumers under 30 years old, and the family with the highest household income. Consumers' purchasing energy-efficient products was presented in large size of family members, and young consumers.

Second, consumers' environmental oriented behavior, action-directed behavior, health-seeking behavior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energy saving behavior, and active

*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허경옥 (kohuh@sungshin.ac.kr)

information search for energy saving, but not with purchasing energy-efficient products and consuming behavior of electrical energy.

Third, the quantity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was affected by the size of family members, the living size of house related with high energy demand, the attitude for energy saving, and searching information for energy-saving.

Key Words : 에너지절약태도(energy-saving attitude), 에너지절약정보탐색(information search for energy-saving), 에너지효율제품구매(purchasing energy-efficient products), 전기에너지소비(electric energy consumption)

I. 서론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는 등 유가파동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및 자원고갈의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속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은 전 세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우리의 경우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서 낮은 에너지 소비효율, 에너지 소비산업비중의 과다,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 에너지 총 소비의 38%가 소비산업에 사용되고 있고 제조업의 경우 산업분야 에너지소비의 80%를 사용하고 있다(우기중, 2009). 유가가 10% 상승시 GDP가 0.35% 감소하며 물가는 0.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이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에너지효율제품 개발 및 유통,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이벤트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추진 10대 과제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탈석유에너지자립구현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제5의 에너지로 규정하여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가정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건물, 가전제품의 고효율화로서

에너지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적 작동, 저효율 에너지제품의 퇴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탄소발자국 계산기보급(환경부, 그린스타트운동), 탄소라벨링, 그린스토어 확대 등을 통한 녹색소비활성화, 자전거생활문화 확산, 녹색마을 만들기와 생태관광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여성부에서는 We Green 운동 7가지 약속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대기전력을 줄여 전기사용량 절약이 하나로 포함되어있으며,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 실천운동인 ‘그린 에너지 패밀리’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빼기, 홈에너지닥터, 탄소캐쉬백,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에너지 절약, 주로 전기절약에 치중하는 등 에너지 절약은 정부 부처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2008)에 따르면 신고유가시대의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책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진단 의무화, 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 및 세액공제, 대기전력절감, 효율등급표시제, 최저소비효율제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나 실천 프로그램들은 에너지 소비주체별 이용형태분석을 통해 낭비요인 파악, 해소방안 정책 추진, 에너지수요 부분의 세분화와 부문별 이용형태 분석이 미흡하여 효과적 추진이 어렵다(박명희, 2009).

에너지절약이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 국

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에너지 사용이나 절약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조사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된 에너지절약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지 않고, 에너지절약 태도 및 에너지 관리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등 편의표집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 전국 규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정의 실제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에너지절약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는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구매행동, 실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조사·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구매, 가정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고 이들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구매, 가정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때,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구매, 가정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지금까지의 논의 및 실증분석을 토대로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구매, 가정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질서행동, 실천성, 건강추구행동, 환경추구행동, 가정지향성 등의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에너지태도, 에너지절약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구매,

에너지사용량을 이해함에 있어 질서행동, 실천성, 건강 및 환경추구행동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전행동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응용·검증하여 에너지사용행동에 대한 논리적, 이론적 차원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가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즉 에너지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의 규명작업을 수행한 결과는 에너지절약 교육,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홍보, 에너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구체적인 정보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교육 및 에너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치나 태도, 공중질서 실천성, 건강 및 환경관련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관련 교육, 운동, 각종 프로그램이 수립·이행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에너지절약행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가정학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관련 연구는 충분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에너지절약행동에 대한 조사·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에너지절약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 없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에너지절약태도 등이 에너지절약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절

약행동을 설명하는 모델개발이나 이론적 접근이 발전되지 못한 채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조사되어왔다. 에너지사용행동이나 에너지절약행동을 설명하는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사용행동을 이해하고 이론적 모델을 설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 이는 환경절약행동에 관한 논의나 이론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아 이를 응용할 수 있다.

Bryce, Day, Olney(1997)는 환경보전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i) 응용행동적 접근(환경행동촉진을 위한 포상과 규제, 경각심 고취, 법적 강제), ii) 동기 부여 접근(금전 지급, 복권형태의 당첨, 쿠폰), iii) 설득적 대화 접근(환경교육, 광고, 캠페인), iv) 사회적 영향 접근(사회적 공감대), v) 규범적 접근(자아인지, 규범)이다. Bryce와 동료들의 모델을 통해 사람들의 규범이나 설득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사회규범적 행동 모델(theory of reasoned action)로 확대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모델을 응용하여 개인의 실천 및 행동에 초점을 두는 질서실천행동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과 환경운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환경과 건강을 추구하는 환경추구 접근과 건강추구 접근으로 대할 수 있다.

한편, Stern(1999)은 환경보전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적 접근, 행동적 접근, 구조적(contextual) 접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개인적 접근은 개인과 사회적 의무감에 대한 도덕적 신념, 환경에 대한 태도, 다양한 인지·동기·감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tern(1999)의 행동적 접근에서는 규범적 행동주의, 시민으로서의 행동,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끝으로 Stern(1999)의 구조적 접근은 문화적 배경, 가족이나 종교적 상황, 사회계층, 거주상황, 정부정책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밝

혀 환경보전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다.

Schwartz(1973)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이 재활용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람들의 경각심이나 규범, 책임, 사회적 규범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 준다. Thogersen(1996)은 재활용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재활용과 관련한 비용과 이익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 즉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Thogersen(1996)은 환경보전행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비교·평가하면서 기대효용모델이나 합리적행동모델은 환경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Schwartz(1973), Hopper, Nielsen(1991)은 재활용행동은 이타주의 개념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환경친화적행동 연구에서 개인의 내적 통제, 개인적 책임감(오세진 외, 2001), 에너지 소비습관(정희성, 1996), 생활양식(임기추, 강윤영, 2004), 자존심, 소속감, 개인적 통제감 등과 같은 성격 요인(Geller, 1995), 가치 지향성이나 태도변수(Fransson, Garling, 1999), 환경에 대한 염려(오세진 외, 2001; Zimmermann, 1996), 환경이슈에 대한 지식(Young, 1980) 등의 변수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거나 그 영향력이 검증되어 왔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환경친화적 행동연구에서 거론된 변수들을 에너지절약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즉 에너지절약행동의 모델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허경옥(2004)은 환경추구행동 분야 선행연구들의 모델을 정리·요약하여 i) 경제적 동기나 합리적 성향을 중시하는 합리적 행동 접근, ii)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규범 및 실천, 사회적 강제 등을 강조하는 사회행동적 접근, 그리고 iii) 개인의 가치나 태도를 중시하는 개인적 가

치 접근이 에너지사용행동을 설명하는 모델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조사한 김경자(2009)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인식은 3가지 차원의 개념으로써 i) 절약으로서 에너지 절약, 합리적 소비, 재활용, ii) 자연보전으로써 친환경, 천연자연, iii) 건강, iv) 기타 자원재분배, 사회환원, 편안·안전 등으로 나타나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성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시월(2009)은 녹색사회와 소비자의 형태변화 연구시 의식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 않으며 소비행태가 복잡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명희(2009)는 녹색생활을 위한 가치관으로 가족가치관, 생활가치, 에너지사용,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생활가치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실천함으로서 즐겁고 행복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명희(2009)의 주장을 검토해 볼 때 에너지절약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가족가치관, 생활가치 등 새로운 변수의 도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환경친화적 행동연구에서 거론된 변수들을 에너지사용행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도입하여 그 영향력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에 주로 검증되어온 의식이나 태도, 정보탐색 등의 변수가 에너지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경의식수준이 환경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과요인이라는 연구결과(예: 이종호, 노정구, 김인숙, 2000; 이상협, 2003; 안창희, 정순희, 2004; 성영애, 2005)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과(민현선, 이기춘, 1999; 허경옥, 2007)가 혼재하고 있어 에너지 관련 의식이나 태도가 에너지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높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정보의 부재로 드러나고 있어 소비자의식 변수 못지않게 어떻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한국실업기술진흥원, 2009). 즉, 에너지사용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정보탐색행동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사용행동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도입하고 관련 변수들이 에너지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실천 및 행동에 보다 초점을 두는 사회 규범적 접근, 둘째, 에너지절약이 환경운동과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환경 추구성 접근, 셋째, 주로 가정에서 에너지사용이 이루어지므로 가정가치 접근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때, 3가지 모델을 대리하는 지표로써 사회 규범적 접근은 질서행동과 실천성으로, 환경추구성은 환경추구행동으로, 가정가치 접근은 가정생활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가정지향성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에너지절약행동 및 에너지사용량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온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탐색행동 변수들의 영향력도 검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에너지사용행동 분야의 선행연구는 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남숙(2003)은 대학생의 에너지절약교육경험과 에너지절약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에너지절약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남숙(1990)은 에너지절약 광고가 에너지절약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에너지절약행동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에너지절

약 광고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에너지절약태도의 변화가 컸고 그 결과 에너지절약행동이 적극적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생의 에너지절약태도가 높은 집단이 에너지절약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경미, 이기춘(1987)은 에너지절약교육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 보다는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여 에너지사용행동에 있어 규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에너지절약방법, 에너지절약정보제공 형태의 에너지절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에너지절약태도 및 에너지절약 지식이 에너지절약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었다.

안길상(1993)은 에너지절약행동 관련 정보전달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에너지절약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정보탐색자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거나 그들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는 ‘에너지 메이븐’은 조사대상자의 약 30%로서 노령층, 고학력층, 고소득층,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절약 관련 정보를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오세진, 양병화, 현보성, 김형수(2001)는 환경에 대한 염려는 에너지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성격 변수인 내적 통제 및 개인적 책임감도 에너지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기춘, 여정성, 민현선(1996)은 에너지태도가 에너지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변수로 드러났다. 이선영, 정순희(2009)는 에너지역량을 산출하기 위해 소비자능력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기능 변수를 응용한 결과 에너지지식 점수는 4.21, 에너지 태도 4.19, 에너지 기능 3.42로 나타났으며, 이를 총합한 소비자의 에너지역량은 3.93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에너지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실질적인 에너지사용량을 근사하지 않고 에너지사용태도나 절약의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가 에너지절약행동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태도가 에너지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거나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에너지 관련 행동의 가장 실질적인 내용인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에너지사용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이론적 모델 설정, 새로운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만 20세 이상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서울, 경기·강원,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5개 지역별로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였다. 할당된 조사대상자에게 전기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 에너지 절약 관련 정보탐색, 에너지 효율제품 구매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4월 중순부터 2주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설문조사에서 적절치 못한 문장이나 표현, 애매한 내용 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 및 수정을 받아 설문조사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본 조사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8월, 1달간 실시하였다. 이때, 2008년 7월과 8월에 발부된 전기요금고지서(2008년 6월의 전기에너지사용량)를 설문지에 부착하거나 조사대상자가 고지서를 반드시 보고 전기에

너지사용량(kw)을 설문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67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 구매행동,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기타 관련 변수들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둘째,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절약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구매,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3. 용어정리 및 척도 구성

본 연구에서는 환경행동 관련 분야에서 활

용되어 온 여러 이론적 접근 중 에너지절약행동에 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세 가지 접근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i) 사회 규범적 접근, 즉 개인의 실천 및 행동에 보다 초점을 두는 접근을 도입하였고 대리지표로서 질서행동 변수와 실천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에너지절약은 환경운동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ii) 환경 추구성 접근을 도입하였고 환경추구행동 변수를 사용하였다. 에너지 관련 행동의 경우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iii) 가정가치 접근을 도입하였는데 가정생활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지의 정도로 측정된 가정지향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들 대리지표 변수로서 질서행동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3개 문항(내적 타당도 .86),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 규범적 접근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실천성은 4개 문항(내적 타당도 .77)으로 측정하였다. 환경추구행동 변수는 4개 문항(내

<표 1> 에너지절약행동 관련 변수 측정문항 및 내적 일치도

변수	질 문 내 용	평균	신뢰계수
질서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줄서서 타고 내리는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 나는 정지선, 신호를 잘 지키는 편이다. · 나는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12.58	.86
실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목표를 세우면 실천을 잘 하는 편이다. · 나는 말 보다는 실천을 중요시 한다. 	7.56	.69
환경 추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에서 놀고 난 뒤 쓰레기는 되가져온다. · 쓰고 난 식용유는 종이에 닦아 쓰레기통에 버린다. · 세탁할 때는 합성세제의 사용량을 줄인다. ·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분리 배출한다. 	16.02	.77
가정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 취미나 여가를 가족과 함께 하는 편이다. · 결혼하면 가정을 지키는 쪽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11.59	.54
에너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쾌적함·편리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회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 · 조금씩이라도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은 필요하다. · 에너지절약형의 생활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83	.78

적 타당도 .77)으로, 가정지향성 변수는 3개 문항으로(내적 타당도 .54) 측정하였다.

한편, 에너지절약태도는 선행연구(최남숙, 1990; 여정성, 1996)를 참조하여 5개 질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개 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고,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값은 .78 이다. 에너지효율제품 구매행동은 가전제품, 조명기기, 자동차 구매시 에너지효율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중요시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에너지정보탐색행동은 5개 문항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i) 나는 에너지절약 정보에 민감하다, ii) 우리 주변에 에너지절약정보가 부족하다, iii) 나는 에너지절약정보를 열심히 찾는다, iv) 에너지절약정보를 홍보 팸플릿에서 열심히 찾는다, v) 에너지절약 교육 자료를 열심히 찾는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Versio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 질서행동 및 실천성, 환경추구행동, 가정지향성, 전기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구매행동,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기타 관련 변수들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t 검정 또는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구매행동,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고자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190명(28%), 여성은 488명(7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41%는 고졸, 51%는 대졸, 8%는 대학원 졸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약 5%, 30대 16%, 40대 39%, 50대 27%, 60대 이상은 13%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수준의 경우 월평균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14%,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25%,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26%,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14%, 500만원 이상인 경우 21%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는 약 16%, 아파트는 2/3가 넘는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는 276명으로 조사대상전체의 약 42%, 비수도권 거주 조사대상자의 경우 389명, 전체의 59%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가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 직업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25%, 비전문직 종사자는 6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기혼남성인 경우 조사대상자의 부인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2%,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9%로 드러났다. 맞벌이여부를 조사한 결과 맞벌이부부는 약 32%, 비맞벌이 부부는 68%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42%, 경기도 및 강원도의 경우 17%, 충청남북의 경우 17%, 경상도와 전라도 거주자는 24%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84)

특성		빈도 (%)	특성		빈도 (%)
성별	남성	190 (28.0)	교육	고졸	275 (41.1)
	여성	488 (72.0)		대졸	340 (50.8)
				대학원	56 (8.0)
연령	20-29세	28 (4.5)	소득	200만원 미만	95 (14.3)
	30-39세	101 (16.2)		200-300 미만	163 (24.6)
	40-49세	244 (39.1)		300-400 미만	173 (26.1)
	50-59세	171 (27.4)		400-500 미만	92 (13.9)
	60세 이상	80 (12.8)		500만원 이상	140 (21.1)
주거	단독	48 (16.3)	수도권	수도권	276 (41.5)
	연립	19 (6.4)		거주여부	비수도권
	아파트	228 (77.3)			
맞벌이여부	맞벌이	185 (31.8)	거주 지역	서울	276 (41.5)
	비맞벌이	397 (68.2)		경기강원	113 (16.9)
				충청남북	116 (17.4)
				경상전라남북	160 (24.1)

* 참조: 결측치로 인해 표본 수의 합에 차이가 있으며 반올림으로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2. 에너지절약태도, 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 제품구매 차이 검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 관련 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구매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절약태도는 성별, 교육수준, 가족 수, 연령,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과 고졸 학력자가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대졸자는 에너지절약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그리고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으로 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한 달 평균 301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가계소득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경우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10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집단 그리고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간소득 계층에서 에너지절약태도가 적극적이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에너지절약태도가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절약 관련 정보탐색의 경우 여성, 취업자, 고졸자, 비수도권 거주자가 에너지정보탐색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가족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 관련 정보탐색행동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가장 젊은 연령층인 20대 연령층에서 또한 가계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월평균 가계소득 501만원이상인 집단에서 그리고 주거평수가 가장 넓은 50평이상 집단에서 에너지정보탐색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효율제품 구매는 에너지절약태

(표 3) 에너지절약태도, 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구매 차이 검증 결과

변수	구분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			에너지효율제품 구매		
		평균	t/F	D	평균	t/F	D	평균	t/F	D
성별	남성	20.02	-4.36***		14.18	-2.13*		.02	-.410	
	여성	21.15			14.73			.04		
취업 여부	취업	21.02	.80		14.93	2.74**		.00	-1.73	
	비취업	20.81			14.19			.06		
교육	고졸이하	21.23	2.85**		15.00	3.15**		.02	-.65	
	대졸이상	20.55			14.26			.04		
아파트 주거여부	단독 등	21.82	-.40		15.28	-1.23		.04	.726	
	아파트주거	22.00			15.84			.00		
수도권 거주여부	비수도권 거주	21.04	1.34		14.87	2.11*		.02	-.70	
	수도권 거주	20.72			14.37			.04		
가족수	2인이하	20.86	1.98*		14.29	1.41		.05	3.06*	a
	3인	20.80			14.20			.01		a
	4인	20.71			14.59			.01		a
	5인이상	22.45			15.05			.20		b
주거 평수	<20평	21.58	1.95		15.18	3.08*		.00	.59	a
	20-39평	22.33			15.05			.00		a
	40-49평	21.91			15.87			.03		a
	50평이상	21.15			14.66			.08		a
연령	18-29세	20.1	2.38*		12.70	4.61***		.14	2.05*	b
	30-39세	20.4			13.94			.07		ab
	40-49세	20.8			14.87			.01		a
	50-59세	20.7			14.63			.00		a
	60세이상	22.3			14.39			.02		a
가계 소득	100만원이하	21.04	2.61*		14.86	2.55*		.00	1.66	a
	101-200만원	20.38			14.71			.01		a
	201-300만원	21.00			14.69			.07		a
	301-500만원	23.27			14.85			.00		a
	501만원+	20.80			13.87			.07		a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도와 에너지 정보탐색행동과 달리 가족 수와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가족 수가 가장 많은 5인 이상의 경우, 연령이 가장 낮은 20대 집단에서 적극 구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의 차이 검증 결과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수

〈표 4〉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의 차이 검증 결과

변수	구분	평균	t/F	D
성별	남성	501.37	1.69	
	여성	385.86		
취업여부	취업	398.40	.78	
	비취업	369.86		
교육	고졸이하	382.18	-1.51	
	대졸이상	427.62		
아파트주거 여부	단독 등	369.39	-1.12	
	아파트주거	402.84		
수도권거주 여부	비수도권 주거	359.95	-2.73**	
	수도권 주거	425.35		
가족수	2인이하	280.68	5.23***	a
	3인	387.52		ab
	4인	402.64		b
	5인이상	558.32		c
주택 평수	<20평	281.55	12.20***	a
	20-39평	327.03		a
	40평-49평	384.90		a
	50평이상	547.35		b
연령	18-29세	272.17	4.57***	a
	30-39세	422.73		a
	40-49세	437.68		a
	50-59세	344.76		a
	60세이상	296.67		a
가계소득	100만원이하	329.76	6.42***	a
	101-200만원	336.32		a
	201-300만원	379.74		ab
	301-500만원	433.95		bc
	501만원+	504.87		c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도권 거주자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이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많았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전기에너지사용량이 많았다. 또한, 주거평수가 50평 이상인 집단, 가계소득이 가장 높은 501만원이상인 집단에서 전기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전기에너지를 많이 써야만 하는

집단, 즉 가족 수가 많은 경우, 주거공간이 넓은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대형 가전제품소유나 전체적으로 가전제품 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즉, 가전제품소유 및 각종 가정생활 측면에서 전기에너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기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기에너지는 가정에서 필수재적 성격의 소비재임을 알려 준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관련 프로그램개발의 경우 가족 수에 따라 차별적인 에너지 사용적정량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전기에너지절약이 가능하기위해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수나 크기를 줄여서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정책이 유용할 것임을 알려 준다.

4.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절약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구매 영향 요인 조사

조사대상자의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절약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3 가지 이론적 관점을 대표하는 변수, 즉 질서행동과 실천성, 환경추구행동, 가정지향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그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이 에너지절약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6%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 질서행동, 실천성, 환경추구행동, 가정지향성 변수로 나타났다. 사회인구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절약태도가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질서행동수준이 높은 경우, 실천

〈표 5〉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절약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구매 영향요인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		에너지효율	제품구매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여성여부	-1.73	-.06	.70	.06	-92.98	-.13
수도권거주여부	.59	.03	.42	.06	-1.63	-.00
아파트주거여부	.12	.01	-.73	-.09	35.83	.07
맞벌이여부	-.14	-.01	.30	.04	41.13	.08
거주주택평수	-.89	-.08	-.18	-.04	71.43	.27
대졸여부	.55	.03	.05	.01	-30.81	-.85
소득	-0.71***	-.39	-.24	-.12	18.35	1.62
가족수	.19	.02	.15	.04	21.89	.10
연령	.15	.14	.10**	.22	-6.08**	-.22
질서행동	1.20***	.27	-.02	-.01	-8.57	-.08
실천성	1.02**	.51	.53**	.20	31.47*	.20
환경추구행동	.81***	.25	.32***	.25	-4.22	-.05
가정지향성	.63*	.13	.01	.01	-12.72	-.11
에너지절약태도	.27	.08	.38***	.26	5.27	.07
상수	-1.00		-6.33*		266.88	
F값	13.74***		11.34***		3.70***	
R ²	.56		.48		.24	
adjusted R ²	.52		.44		.17	

*p<.05, **p<.01, *** p<.001

성 수준이 높은 경우, 가정 지향적이고 환경추구행동수준이 높은 경우 에너지절약 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에너지 관련 행동의 이론적 관점으로 설정한 변수들이 모두 에너지절약태도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에너지절약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로 살펴보면 실천성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으며, 질서행동, 환경추구행동, 가정지향성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이 에너지절약정보탐색의 차이를 48%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너지절약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추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실천성이 높을수록,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만이 에너지절약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이 에너지효율제품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은 24%로 나타났고, 에너지효율제품구매는 연령과 실천성에 의해서만 영향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이 낮은 사람, 실천성 수준이 높은 경우 에너지효율제품구매에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여기서 연령이 높은 경우 에너지절

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에너지 정보탐색을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이 에너지절약태도가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덜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아마도 연령이 낮은 집단이 실질적인 태도나 정보탐색이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한 수요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역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은 에너지절약태도와 정보탐색은 적극적이거나 이 같은 특색이 에너지효율제품구매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5.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목적인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정에서 2008년 6월에 사용한 전기에너지사용량(kw)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가급적 전기세 고지서(2008년 7월, 8월)를 설문조사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질서행동, 실천성, 환경추구행동, 가정지향성 변수, 에너지절약태도 변수가 전기에너지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이 가정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의 차이를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주택평수, 학력, 가족 수, 실천성, 에너지절약태도, 에

너지절약정보탐색 변수로 드러났다. 주택평수가 넓을수록, 고졸자, 가족 수가 많을수록, 실천성 수준이 높은 경우,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에너지절약정보탐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우 전기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3개의 이론적 접근 중 사회규범 접근만이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환경추구성, 가정지향성은 전기에너지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혼재되어온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 및 에너지절약정보탐색은 본 연구에서는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표 6>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 영향요인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여성여부	-93.440	-.127
수도권거주여부	-.308	-.001
아파트거주여부	29.974	.060
부인취업여부	43.918	.088
주택평수	90.097***	.303
대졸여부	-19.217*	-.044
소득	16.070	.099
가족수	28.524*	.133
본인연령	-6.054	-.299
질서행동	-9.169	-.086
실천성	31.249**	.197
환경추구행동	-5.889	-.076
가정지향성	-10.430	-.091
에너지절약태도	1.932*	.024
에너지정보탐색	2.159*	.027
에너지효율제품구매	-57.328	-.086
상수	341.41	
F값	3.20***	
R ²	.24	
adjusted R ²	.16	

*p<.05, **p<.01, ***p<.001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에너지 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적 관점 변수는 에너지절약태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들로 나타났으나, 실제 전기에너지 사용량에는 실천성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가족 수, 주택크기에 의해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전기에너지소비가 상당히 필수재적 성향의 소비재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전기에너지 사용이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태도변화가 실질적인 사용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신 자료, 전국 규모의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의 실제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절약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구매, 전기에너지사용량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기존에 주로 사용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이외에 사회규범 접근에 근거한 질서행동과 실천성, 환경추구행동, 가정지향성 변수를 도입하여 전기에너지사용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절약태도는 여성, 고졸, 가족수가 5인이상인 경우, 연령이 가장 높은 60대인 경우, 가계소득이 중산계층인 경우(301만원에서 500만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정보탐색의 적극성은 여성, 취업자, 고졸자,

비수도권거주자, 가족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 가계소득이 가장 높은 501만원이상이 아닌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주거평수가 가장 넓은 50평이상에서는 에너지정보탐색이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효율제품구매는 가족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령이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은 수도권 거주자, 가족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계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기에너지 수요와 연관이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여러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회귀분석결과 에너지절약태도는 질서행동, 실천성, 환경추구성, 가정지향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정보탐색은 연령, 환경추구성, 실천성, 에너지절약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실천성이 높은 경우 에너지효율제품구매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은 주택평수가 넓은 경우, 고졸의 경우, 가족수가 많은 경우, 실천성 수준이 높은 경우, 에너지절약태도가 긍정적인수록, 에너지정보탐색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기에너지사용량은 실천이 가장 중요할 뿐 환경지향성이나 가족지향성에 의해서는 영향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질서행동은 에너지절약태도에만 영향을 미치며, 실천성과 환경추구행동은 대체로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절약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중 실천성만이 실질적인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새로이 도입한 대리변수들의 영향력은 에너지절약태도 및 정보

탐색행동에 보다 적합하나 실질적인 전기에너지사용량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절약 관련 교육 및 각종 정책 등에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서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전기에너지가 주택평수, 가족 수, 소득수준 등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사실은 전기에너지가 필수재적 성향의 재화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필수재적 성격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천성, 태도, 에너지정보탐색 등 사용자의 의지나 실천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알려 준다.

둘째, 에너지절약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에너지효율제품구매가 단지 연령이 낮은 경우와 실천성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에너지효율제품구매는 에너지태도변수와는 달리 실천적인 측면이 강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은 경우 에너지정보탐색은 적극적으로 하나 실제로 에너지효율제품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점, 또한 실제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한 정보탐색은 열심히 하나 고효율소비제품의 구매동기부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홍보, 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대졸자의 경우 에너지절약태도가 고졸자보다 덜 적극적이며, 에너지정보탐색행동에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을 결정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대졸자가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에너지절약 관련 각종 교육 및 홍보 등에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각종 교육 및 홍보가 지나치게 계몽적인 것은 아닌지, 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해 소극적인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의 경우 가족 수, 주택 크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에너지절약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 가족 수, 주택 크기 등에 따라 적정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제시해 주어 사람들의 불편함과 저항을 줄이고, 불가능한 실천전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신혼부부, 향후 가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보유하기에 적절한 가전제품의 수나 크기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 및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즉 전기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유용할 것임을 알려 준다.

본 연구는 최신 자료, 전국적인 자료, 실제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에너지태도, 에너지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구매, 가계의 전기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함에 있어 지금까지 고려해 오지 않은 실천 및 규범적 차원의 변수, 환경지향성 변수, 가정지향성 변수 등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에너지절약행동 분야의 주제, 방법, 연구모델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에너지절약이라는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민현선, 이기춘(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 소비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 2) 박명희(2009). 녹색소비사회에서의 소비자변화와 기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회 포럼자료. 인터젠컨설팅.
 - 3) 백경미, 이기춘(1987). 소비자의 에너지소비 절약행동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29-44.
 - 4) 성영애(2005). 인천지역 성인소비자의 환경의식과 환경의식적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35-51.
 - 5) 안창희, 정순희(2004). 환경상품구매자와 비구매자의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56-64.
 - 6) 오세진, 양병화, 현보성, 김형수(2001). 에너지 절약행동을 위한 선행요인들의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37-62.
 - 7) 우기종(2009).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2009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집, 1-23.
 - 8) 이기춘, 여정성, 민현선(1996).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행동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호응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27-239.
 - 9) 이상협(2003). 환경친화적 가정자원관리행동과 환경의식, 환경지식, 환경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91-102.
 - 10) 이선영, 정순희(2009). 소비자의 에너지역량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85-97.
 - 11) 이종호, 노정구, 김인숙(2000). 환경의식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9(2), 171-195.
 - 12) 임기추, 강윤영(2004). 생활양식이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 13) 정희성(1996). 환경친화적 소비자사회구축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14) 최남숙(1990). 에너지절약 광고가 에너지 절약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19-134.
 - 15) 최남숙(2003). 대학생의 에너지절약 교육 경험과 에너지절약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17, 177-187.
 -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9). 녹색소비사회에서의 소비자변화와 기술. 제3회 포럼자료. 인터젠컨설팅.
 - 17) 허경옥 (2004). 소비자 구매행동유형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환경친화적 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69-579.
 - 18) 허경옥(2007). 소비자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의류제품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23-36.
 - 19) 허경옥 (2009). 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에너지 절약태도와 절약행동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7-30.
 - 20) Bryce, W. J., Day, R., & Oney, T. J. (1997). Commitment approach to motivating community recycling: New Zealand curbside trial.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1), 27-52.
 - 21) Fransson, N., & Garling, M. (1999). Environmental concern: Conceptual definitions, measurement methods, and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9, 369-382.
 - 22) Geller, E. S. (1995). Actively caring for the environment: An integration on behaviorism and humanism. Environment and Behavior 27(4), 184-195.
 - 23) Schwartz, S. H. (1973). Normative explanations of helping behavior: A critique, proposa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349-364.
 - 24) Thøgersen, J. (1996). Recycling and moralit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Environment and behavior 28(4), 536-558.
- 투 고 일 : 2010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8월 18일